

덤!

고전 시가, 읽기 & 갈래



- ① 우선 읽을 수 있다!
- ② 고전 시가에 단골로 등장하는 어휘의 의미를 안다!
- ③ 고전 시가를 딱 보면! 어떤 갈래의 작품인지 알 수 있다!
- ④ 갈래에 따라 자주 나타나는 주제를 안다!



고전 시가는 또 어떻게 공부하죠? 우선 읽기부터 못 하겠어요.

선생님, 저도 고전 시가는 너무 힘들어요. ㅠㅠ



고전 시가는 그냥 옛날에 쓰인 시인 거야. 현대시랑 접근 방법은 다를 게 없어. 지금부터 너희가 너무 싫어하는 고전 시가의 **고어(古語)** 읽는 방법을 알려줄게. 걱정하지 마. 3분이면 배울 수 있으니까. 진심. ^^
또 고전 시가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시어들의 의미**, 꼭 챙겨 두자.
여기에 선생님이 정리해 둔 **어휘들만큼**은 꼭 이해하고 암기하기다!

STEP.1 내 생애 마지막 개념 정리!

누구나, 넌... -_-+

개념 62 고어 읽는 법

이어 적기

소리나는 대로 표기했다.
풀어 읽자!

예) 바블 머그니 기부니 조타. ⇒ '밥을 먹으니 기분이 좋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려라 우려라 새여 ⇒ '울어라 울어라 새여'

지금은 사라진 음운들 → 이상한 어들의 장체를 알아두자!

① · (아래아) ⇒ 'ㅏ'나 'ㅑ'로 읽어 보자.

예) 식 ⇒ [새], 스슴 ⇒ [사슴]

② △(반치음) ⇒ '△'이 있던 자리에 'ㅇ'을 넣어 보자.

예) 막슴 ⇒ [마음], ㅓ술 ⇒ [가을]

③ ㅃ(순경음 비읍) ⇒ 'ㅇ'나 'ㄱ'로 읽어 보자.

예) 고ㅃㅏ ⇒ [고와], 더ㅃㅑ ⇒ [더워]

어두자음군

읽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음~!

① ㅅ ⇒ [따]

② ㅅㅅ ⇒ [때]

③ ㅅㅅ ⇒ [뜰]

맨 뒤에 있는 자음의
된소리 발음으로 읽어 보자.

개념 63 필수 고전 어휘

★ 1. 하다 = 많다(多), 크다(大)

★ 2. 하다 = ~하다(屬)

3. 시름 = 걱정, 근심

넋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너보다 걱정 많은 - 작자 미상, 「청산별곡」

4. 버혀 = 베어

冬至(동지)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베어

春風(춘풍) 니불 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
이불

어른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정분을 맺은 입

- 황진이의 시조

5. 좋다 = 좋다

6. 좋다 = 깨끗하다

7. ~예 = ~에 (처소 부사격 조사)

物外(물외)에 조흔 일이 漁夫生涯(어부 생애) 아니러냐.
자연에 깨끗한

- 윤선도, 「어부사시사」

말슴도 우음도 아녀도 묻내 도하호노라.

좋아하노라

- 윤선도, 「만흥」

8. 어리다 = 어리석다

9. 지다, 들다 = 떨어지다

복음이 어렵 後(후)니 흐는 일이 다 어리다.
어리석으니 어리석다

萬重雲(만중 운산)에 어니 님 오리마는,

지는 님 부는 바람에 후(행)혀 권가 호노라.
떨어지는 일 그인가

- 서경덕의 시조

★ 10. ~르세라 = ~할까 봐 두렵다.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호면 아니 올세라
서운하면 안 올까 봐 두렵다 - 작자 미상, 「가시리」

어괴야 존 덕을 드되올세라
진 덕을 디달까 봐 두렵다

어괴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괴야 내 가는 덕 점그를세라.
저들까 봐 두렵다
- 작자 미상, 「정음사」

11. 고려(고쳐) = 다시

珠璣廉璫을 고려 짓고, 玉屑階를 다시 쓸며,
다시 걸고

그제야 고려 만나 또 흐 잔 흐찾고야.
다시 만나 또 하자꾸나.
- 정철, 「관동별곡」

★ 12. 네다, 녀다, 니다 = 가다

저 물이 거스리 흐르고져 나도 우러 네리랴.
가리랴.
- 원호의 시조

★ 13. 2인칭 주어 + 는다 = ~는가?(의문형)

14. 장소 + 의(회) = ~에(처소 부사격 조사)

弓宮王 大대開闢 터희 烏鵲작이 지지괴니,
터에
千천古고 興흥亡망을 아^는다. 물으^는다.
아는가, 모르는가
- 정철, 「관동별곡」

15. 혀다 = 켜다, 연주하다

이월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스불 다호라
컨

- 작자 미상, 「동동」

사슴미 갯대에 올라서 희금을 희거를 드로라.
연주하거늘

- 작자 미상, 「청산별곡」

16. 머물다 = 쉽다

남의게 보내오려 님 거신 대 바라보니,
임에게 임 계신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함하기도 함하구나

- 정철, 「사미인곡」

17. ~도곤 = ~보다

李니謫역仙선 이제 이셔 고려 의논하게 되면,
이적선(이태백) 다시

廬山이 여기도곤
여산 여기보다
(중국의 산 이름)

낮단 말 못 하려니.

- 정철, 「관동별곡」

18. 편자(扁鵲) = 중국 전국 시대의 의사(?~?). 성은 진(秦).

이름은 월인(越人).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하였다. 장상군(張桑君)으로부터 의술을 배워 환자의 오장을 투시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전한다. (명예(名譽)의 대유)

믿음의 밭에 이서 골수의 썩어지니
 벗속까지 사무쳤으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하리
명의가 열 명이 온다 한들

- 정철, 「사미인곡」

19. 괴다 = 사랑하다

★ 20. 'ㄷ, ㅌ' = '즈, 츠' 으로 읽어 보자. 구개음화가 안 일어난 거니까,

어마님 7월 괴시리 업세라
어머님같이 사랑하실 이

- 작자 미상, 「사모곡」

21. 시비 = 사립문

22. 인간 = 인간 세상(속세)

인간(人間)을 떠나와도 내 품이 겨룰 없다.
인간 세상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코

밤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낚고

시비(柴扉)란 뉘 닫으며 진 꽃으란 뉘 쓸려노
사립문

- 송순, 「면암정가」

23. 험 = 생각

24. **헤다** = 생각하다, 헤아리다

긴 한숨 디는 눈물 속절없이 헐만 만타
떨어지는 생각만 많다

- 허난설헌, 「규원가」

★ 25. 홍진(紅塵) = 속세

★ 26. 무심(無心) = 욕심 없음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돌아보면 만첩(萬疊) 청
 산(靑山)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속세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욕심이 없어라.

- 이현보, 「어부가」

- ★ 27. 암향(暗香) = 매화의 그윽한 향기. 충(忠)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음.

어리고 성근 매화(梅花) 너를 잊지 안았더니
눈 기약(期約) 능(能)히 직켜 두세 송이 푸엿구나
촉(觸) 잡고 갖가이 사랑할 제 암향부동(暗香浮動)하
꽃불 그윽한 향기조차 떠도는구나
더라.

- 안민영, 「매화사」

28. 어엿브다 = 붙삼하다

꿋도리 며 꿋도리 어엿브다 며 꿋도리
귀뚜라미 붙삼하다
- 작자 미상의 시조

29. 현사하다 = 아단스럽다

어와 조화옹이 현사토 현사홀사
아단스럽기도 아단스럽구나
- 정철, 「관동별곡」

- ★ 30. 식어디다 = 사라지다, 죽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뒤편이라.
죽어서
- 정철, 「사미인곡」

31. 어와, 이즈버 = 아아(감탄사)

어와 내 일이야 가련이도 되었고나
아아
- 안조원, 「만업사」

이즈버 인간 이별을 또 엇지다 호느다
아아
- 신희의 시조

32. 저근덧 = 잠깐 사이에, 문득

저근덧 청각마라 이 시름 낮자 하니
잠깐 사이에
- 정철, 「사미인곡」

33. 슬꺾장 = 실컷

바윗곳 뽕 7의 슬꺾지 노니노라.
실컷
- 윤선도, 「만흥」

34. ~고저 = ~하고자(소망)

양춘을 부쳐 내며 님 겨신 뒤 쏘이고저.
따뜻한 봄별 쏘이고자
- 정철, 「관동별곡」

35. 우희(우+희) = 위에

춘산에 눈 녹인 바윗 건듯 불고 간 의 업다.
저근덧 비러다가 머리 우희 불니고저.
위에
- 우탁의 시조

36. ~커니와 = 커녕

각시님 돌이야 커니와 구준 비나 되쇼셔
달은 커녕
- 정철, 「속미인곡」

- ★ 37. 백구 = 흰 갈매기

백구야 누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야노
흰 갈매기
- 정철, 「관동별곡」

38. 녀름 = 여름(夏, 계절)
 39. 여름 = 열매(果)
 40. 꽃 = 꽃 (花)
 41. 곧 = 곳 (處, 장소)

불휘 기쁜 남근 북락매 아니 필썩, 꽃 도쿄 여름 하
 뿌리 깊은 나무 혼들릴 새, 꽃 좋고 열매 많나니
 느니

이 곧 저 고대 후(後)△ 날 나락리잇가.
 이곳 저 곳에 꽃날 다르겠는가
 - 정인지 등, 「용비어천가」

★ 42. 이화 = 배꽃 (봄의 계절감)

이화우 꽃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호 님
 비쳐릴 배꽃이 출날릴 때
 - 계랑의 시조

43. 약수 =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 속의 강. 길이가
 3,000리나 되며 부력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
 라앉는다고 한다. (임과 화자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디
 장애물이 가렸기에
 - 허난설헌, 「규원가」

★ 44. 도화 = 복숭아꽃 (봄의 계절감, 무릉도원)

도화(桃華) 쓴 몸은 물에 산영(山影)조츠 잠겼세라.
 복숭아꽃
 - 한효의 시조

45. 행화 = 살구꽃 (봄의 계절감)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여있고
 복숭아꽃 살구꽃
 - 정극인, 「상춘곡」

46. 삼공(三公) = 삼정승(높은 지위)

누고서 삼공(三公)도곤 낫다하더니 만승(萬乘)이
 누가 삼정승보다 천자가
 이만하랴
 이만하겠는가?
 - 윤선도, 「만홍」

47. 백이숙제 = 백이와 숙제, 지조와 절개를 지킨 인물들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호노라.
 백이와 숙제를 한탄하노라
 - 성삼문의 시조

★ 48. 어옹(漁翁) = 고기잡는 늙은이(생계형 어부가 아님)

어옹을 웃지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늙은 어부를 비웃지 마라
 - 윤선도, 「어부사시사」

49. 천석고황(泉石膏肓) =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병이 될 정도로
 깊음. = 연하고질(煙霞癡疾)

호닐며 천석고황을 고쳐 부슴호료.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 이황, 「도산십이곡」

50. 실솔 = 귀뚜라미

가을 들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울 제
 귀뚜라미가 침상에서
 - 허난설헌, 「규원가」

51. 니르다(일러, 닐러) = 말하다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닐러 므슴 홀고.
 말해 무엇할 것인가
 - 이황, 「도산십이곡」

52. 양금(원앙금) = 원앙을 수놓은 이불.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힘이나 남을 보려 뒤통고 비겨시니, 양금(鸞衾)도
원앙새를 수놓은 이불이
춥도 출사 이 밤은 언제 셀고,
차기도 차구나
- 정철, 「사미인곡」

☆ 53. -르샤 = -구나 (감탄형)

선산(仙山) 동해(東海)에 갑 길히 머도 멀샤.
멀기도 멀구나
- 정철, 「관동별곡」

‘르샤르샤’랑 헛갈리지 말자!



☆ 54. 자규 = 두견새, 귀촉도, 불여귀 (한의 정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라마는
배나무 가지 끝에 맺힌 봄의 정서를 두견새가 알겠느냐마는
- 이조년의 시조

55. 수이 = 쉽게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
쉽게
- 황진이 시조

개념 64 고전 시가의 역사적 갈래



현대시는 그냥 현대시인데, 고전 시가는 고대 가요, 향가, 고려 가요, 시조, 가사 등 갈래가 다양해.
갈래별로 불린 시기도 다르고, 작가층도 다르고, 주제도 살짝 살짝 달라.
정리해 놓자. 지금부터 딱 한 시간 정도면 될 거 같은데. 그 정도는 강투자까지?

지금부터 배우는 순서는 다음의 순서는 교과서에 나온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갈래 순서임 ㅎㅎ

1. 시조

고려 중엽에 발생하여 고려 말엽에 완성된 정형시.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는 문학 갈래.

시조 알아 보기

3장 6구 45자 내외, 3·4조 또는 4·4조의 음수율, 4음보가 기본,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

시조는 종류도 많다.

① 평시조 : 3장 6구 45자 내외의 글자로 구성된 정형시. 평시조가 두 수 이상이 모여 한 작품을 이루면 연시조라고 하는 거야.

동기로 세 몸 되어 한 몸같이 지내다가
두 아운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고
날마다 석양 문 외에 한숨겨워 하노라.

- 박인로의 시조

② 엷시조 : 평시조의 형식에서 종장의 첫 구절을 제외한 어느 한 구절이 평시조보다 길어지는 형태.

천세를 누리소서, 만세를 누리소서
무쇠 기둥에 꽃 피어 열을 열어 따돌이도록 누리소서.
그 밖에 억만 세 외에 또 만세를 누리소서.

- 작자 미상의 시조

③ 사설시조 : 평시조의 형식에서 두 구절 이상 길어지는 형태. 엷시조와 마찬가지로 길어지는 구절의 글자 수는 열 자 이상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대천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닻도 잃고 용궁줄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몰결치고 안개 뒤섞여 잿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 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겁어 어둑하고 천지 적막 사나운 파도 치는데 해
적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엷그제 입 여윈 내 마음이야 어디다 견주어 보리요.

-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보통은 엷시조와 사설시조를 그리 엄격하게 나누진 않으니깐이 구분하려고 머리 쥐어뜯지 마.



시조의 작가는 누구?

임금부터 양반, 부녀자, 기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해. 그리고 그 작가층에 따라서 주제도 대략 정해진다는 점 명심!

- 작가가 양반이면 유교적 충의 사상, 부모에 대한 효,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
- 작가가 기녀이면 일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 작가가 평민이면 팔관오리 비판, 삶에 대한 답답함 해소, 일에 대한 그리움 통통.



- 고려 시대 시조에는 유교적 충의 사상에 바탕을 둔 절의가, 농음을 한탄하는 탄로가 등이 있다.
- 조선 초기에는 주로 충의 사상을 반영한 회고가, 절의가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점차 유교적 이념만이 아니라 자연과 애정으로 주제가 다양화되었다.
- 조선 후기에는 작가층이 평민층으로 확대되면서 내용도 유교적 관념에서 다양한 삶의 현실을 표현한 것으로 넓어졌다. 특히 평민층의 사설시조는 현실의 모순을 날카롭게 풍자하거나 고달픈 삶을 해학적으로 그려내는 등 웃음의 미학을 살려 내는 것이 많았다.

2. 가사

고려에서 조선 초기에 형태를 갖추었고, 시조와 함께 주로 사대부들이 창작하여 부른 노래.

가사 알아 보기

-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 3·4조, 4·4조의 연속체.
- 4음보의 운율 속에 산문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마지막 행은 대체로 시조의 종장과 음수율이 일치(3·5·4·3)함.
- 시조의 종장과 글자 수가 딱 맞으면 정격 가사, 안 맞으면 변격 가사.

가사의 작가는 누구?

주로 양반 사대부들이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심경, 임금에 대한 연모의 정, 기행을 통해 얻게 된 견문 등을 주로 다뤘어. 그러나 조선 후기에 가서는 평민층으로 작가층이 확대되면서 평민들의 생활이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작품들이 나타나게 되지. 시조의 작가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가사도 종류가 많다.

- ① 은일 가사 : 관직을 떠나 자연에 묻혀 사는 선비의 생활이 드러나. 주제는 '자연에 대한 예찬'과 '유유자적하는 삶의 태도'가 되기 쉽겠지? 그리고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임금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기도 해.
예) 정극인의 「상춘곡」, 송순의 「면앙정가」, 박인로의 「누항사」
- ② 내방 가사 : 내방(규방)이란 부녀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말해. 그러니까 '내방 가사'란 부녀자들의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
(=규방 가사) 예) 허난설헌의 「규원가」
- ③ 기행 가사 :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적은 가사야. 기행문이지.
예) 정철의 「관동별곡」
- ④ 유배 가사 : 기행 가사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유배를 통해 새롭게 얻은 경험과 견문을 노래한 것.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도 있지만 '자기의 무죄'와 '정적에 대한 복수심', '임금에 대한 일편단심'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지.
예) 조위의 「만분가」, 안조환의 「만연사」

가사의 대표주자들 모여!

★ 표는 평가원 시험에 출제된 적 있는 작품!

작품명	작가	내용
★ 상춘곡	정극인	아! 아름다워라! 봄 경치를 보면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누리 보아요~!
★ 면앙정가	송순	면앙정 주변의 경치가 참 아름답구나. 이것도 다 임금님의 은혜야
관서별곡	백광홍	관서는 참 아름다워라!
★ 성산별곡	정철	성산은 참 아름다워라!
★ 관동별곡	정철	오! 이 관동지방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즐기기도 하고, 관리로서 선정도 베풀고 싶으니 고민이로구나!
★ 사미인곡	정철	나를 버리신 당신이지만 정말 당신이 그립고 걱정이 됩니다.
★ 속미인곡	정철	사미인곡 속편. 두 여인의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짐. 난 당신을 향한 일편단심 민들레
★ 규원가	허난설헌	진짜 내가 당신을 만나서 살 수가 없어 속상해ㅠㅠ 봉건제도 아래 살아가는 여인의 아픔이 바로 이런 거야.
★ 고궁가	허전	이 어리석은 머슴들이! 어떻게 이 나라 관리들이랑 하는 짓이 똑같냐, 그래!!! -.-+
★ 고궁답주인가	이원익	고궁가에 화답한 가사. 진짜 머슴들, 안 되겠네~!
선상탄	박인로	임진왜란의 아픔을 딛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싶구나!
★ 누항사	박인로	그래 나 잊어지게 가난해. 그렇지만 난 안분지족하면서 생긴 대로 살 거야~

일동장유가	김인겸	사신으로 일본을 오고 가며 보고 들은 일본인과 일본의 풍속~
☆ 농가월령가	정학유	정월부터 설달까지 한 해의 할 일을 적어서 농촌 사람을 계몽하는 가사. 월령가란 달거리 노래란 뜻
☆ 만분가	조위	임금님, 그림습니다. 그리고요, 전 정말 억울하거든요!!
☆ 춘면곡	미상	임과의 이별한 것을 슬퍼하며 입신양명한 후에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하는 노래
☆ 만언사	안조환	귀양살이 정말 힘들다.ㅠ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3. 한시

한문으로 이루어진 정형시.

그러나 한글 창제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한시는 우리 문화에 포함되는 거야.

☞ 한시의 대표주자들 모여!

작품명	주제	내용
☆ 아침도의성	가을 달밤에 느끼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	어디선가 들려오는 다들이 소리에 고국의 생각이 간절해짐.
☆ 송인	이별의 정한	대동강가에서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이별의 슬픔을 느낌.
☆ 강설	눈 내리는 강가에서 느끼는 쓸쓸함	눈 내리는 강가에서 홀로 낚시질 하는 늙은이를 바라 봄.

4. 고려 가요

항가가 쇠퇴한 후 고려의 귀족층이 한문학으로 문단을 이끌어 가자, 평민층에 새롭게 나타난 노래.

고려 가요 알아 보기

- 대체로 분절체(연 구분이 있음)이고, 후렴구가 있어. 그리고 '이게 뭐임?' 싶은 의미 없는 여음구가 있지.
- 율격이 꼭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3·3·2조의 3음보 율격이 많이 나타나.

↳ 음수율과 음보율은 6조에서 배웠음.

고려 가요의 작가는 누구?

고려 가요는 대부분 작자가 '미상'. 주로 평민들이 향유하던 것이었고, 아직 우리글이 없던 때이기에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왔어. 주제도 대부분 '남녀 간의 사랑', '이별의 슬픔', '자연 예찬'이라는 것!

고려 가요가 의미있는 이유

고려 가요에는 평민들의 소박하고 진솔한 감정이 꾸밈없이 나타나 있어. 너무 솔직해서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을 정도. 이렇게 꾸밈없고 솔직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수백 년을 전하여 마침내 문헌에 오를 수 있었던 거야.

당대 사람들의 진실한 심정과 풍부한 정서가 순수 우리말 속에서 잘 형상화되어 국문학의 중요한 유산이 되었다는 점이 고려 가요가 높이 평가받는 이유!

☞ 고려 가요의 대표주자들 모여!

작품명	작가	내용
☆ 동동	미상	월별로 노래한다(월령체, 달거리) 계절에 따른 세시 풍속과 임을 향한 마음을 월별로 노래함.
처용가	미상	역신을 몰아내는 처용의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항가에도 처용가가 있음).
☆ 청산별곡	미상	살기 힘들다. 외롭다. 삶의 비애와 고뇌에서 벗어나고 싶어 몸부림치는 노래.
☆ 가시리	미상	일명 귀호곡(歸呼曲). 정말 나를 버리고 가시는 건가요? ㅠㅠㅠㅠ

☆ 정석가	미상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져야만 이별하겠다고 하는~ 독특한 발상의 노래.
서경별곡	미상	적극적인 여인의 이별 거부 노래 안 돼, 나 놔두고는 절대 못가!! 나도 갈 거야
생화점	미상	남녀상열지사. 남녀 간의 항락 추구의 성격을 띤 노래
사모곡	미상	어머니의 사랑을 낮에 비유한 소박한 노래
이성곡	미상	남녀상열지사. 변하지 않는 사랑의 노래
만전춘	미상	남녀상열지사. 임과의 사랑을 대담하게 읊은 노래
상저가	미상	곡식을 찧으면서 부모님을 위한 마음을 노래함.
☆ 정과정	정서	고려 가요스럽지 않아서 출신을 의심받기도 해. 저는 결백합니다. 임금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 믿어 주세요~

5. 민요

예로부터 민중 사이에 불려오던 전통적인 노래를 통틀어 이르는 말.

내게 특정한 작사자나 작곡자가 없이 민중 사이에 구전되어 내려오며 민중들의 사상, 생활, 감정을 담고 있어.

민요 알아 보기

- 연속체의 긴 노래로 후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음.
- 3음보 혹은 4음보의 노래가 많음.
- 삶의 애환과 고달픔, 남녀의 사랑, 놀이의 즐거움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룸.

민요의 작가는 누구?

민요는 그 자체가 '民'들의 노래!

6. 향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의 형태와 의미 요소를 전면적으로 기록하는 표기 체계인 향찰로 표기한 신라의 노래.

향가 알아 보기

4구체, 8구체, 10구체 등이 있는데, 이 중 10구체가 가장 정제된 형식이야.

- 4구체는 민요가 정착된 노래.
- 8구체는 4구체 향가가 두 배로 늘어난 과도기 형태의 노래.
- 10구체가 가장 정제된 형태의 노래. 그래서 별명도 있다, 사뇌가(刺腦歌)!

향가의 작가는 누구?

한자를 활용한 표기를 사용하니 일반 백성들은 작가층에서 제외! 승려, 화랑, 여성 등 여러 계층에 걸쳐 작가층이 분포하며, 현전하는 작품의 작자로는 승려가 가장 많아.

향가가 의미있는 이유

향가는 통일 신라 이후 한반도 전역에 걸쳐 널리 창작되고 향유된 우리의 민족 문화이야. 우리글이 없었던 당시 부득부득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한 향찰 문자를 구상한 것에서 강한 민족적 주체성을 알 수 있어. 향가를 통하여 신라인들의 소박한 정서와 차원 높은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향가의 의의를 찾을 수 있어!

✿ 향가의 대표주자들 모예

작품명	작가	형식	내용
시동요	백제 무왕	4구체	시동이 선화 공주를 차지하기 위하여 아이들을 꼬드겨 부르게 한 동요, 일종의 참요(譏謔).
풍요	여러 남녀	4구체	양지가 영묘사 장육존상을 주조할 때 장안의 남녀들이 진흙을 나르며 불렀다는 노동요.
현화가	어느 노인	4구체	소름 물던 노인이 예쁜 수로부인(水路夫人)을 위해 꽃을 꺾어 바치며 불렀다는 노래.
도술가	월명사	4구체	해가 동시에 두 개가 나타나자 괴변을 없애기 위해 부른 산화공덕(散華功德)의 노래. 일명 산화가(散華歌).
모죽지랑가	득오	8구체	화랑인 죽지랑(竹旨郎)을 사모하여 부른 노래. 만가, 추모가.
처용가	처용	8구체	아내를 침범한 역신(疫神)을 응서하여 감복시킨 주술적인 노래. → 고려가요 '처용가'와 다름.
해성가	용천사	10구체	침략해온 왜구와 큰 벌을 법한 해성을 물리치기 위해 부른 축사(逐邪)의 노래.
원왕생가	광덕	10구체	사후에 극락 왕생을 바라는 불교적 성격의 노래.
원가	신총	10구체	효성왕이 악속을 치키지 않자 그것을 원망하여 지어 짓나무에 부쳤다는 노래. 8구만 전해 옴.
★ 재망매가	월명사	10구체	죽은 누이를 추모하여 재(齋)를 올리며 부른 노래.
안민가	총담사	10구체	군(君)·신(臣)·민(民)이 각자의 할 바를 노래한 치국의 노래. 치세안민(治世安民)의 노래를 지으라는 왕의 요청을 받고 지음.
찬기파랑가	총담사	10구체	화랑인 기파랑을 찬양하고 추모하여 부른 노래. 문답식 구성.
천수대비가	희명	10구체	희명이 실명(失明)한 아들을 위해 부른 노래. 분황사 관음보살에게 아들의 눈을 뜨게 해 주기를 비는 노래.
우적가	영재	10구체	영재가 대현령에서 도독을 만나 도독을 회개시킨 노래.
보현십원가	미상	10구체	예경제불가, 칭찬여래가, 광수공양가, 참회업장가, 수희공덕가, 청전법륜가, 청불주세가, 상수불학가, 향순증생가, 보개회향가, 총결무진가로 이루어진 노래.

7. 연해

조선 시대 한글 창제 이후 한문으로 된 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

8. 고대 가요

향찰로 표기된 향가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우리 민족이 영위하던 집단적·주술적·개인적·서정적인 내용을 노래한 시가.

고대 가요 알아 보기

- 배경 설화 속에 삽입되어 전하다가 후대에 와서야 한자로 정착됐어.
- 4언 4구나 7언 4구의 형태.
- 의식요, 노동요의 성격을 지닌 집단 가요에서 점차 개인의 서정을 노래한 개인 서정 가요로 변화했을 것.



고대 가요의 대표주자들 모여!

작품명	작가	연대	내용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백수광부의 아내	고조선	임이여!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가시는군요.
구지가(龜旨歌)	구간 등	신라 유리왕 19년	임금이여! 오시오소서!!!
황조가(黃鳥歌)	유리왕	고구려 유리왕	난 이별해서 이렇게 슬픈데, 꾀꼬리 너들은 되게 좋아 보인다? 어흑ㅠ
정음사(井邑詞)	어느 행상인의 아내	백제	달님, 비나이다. 행상 나간 우리 남편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해가(海歌)	순정공 등	신라 성덕왕	수로 부인을 돌려 달라!

9. 악장

나라의 제전(祭典)이나 연례(宴禮)와 같은 공식 행사 때 궁중 음악에 맞추어 불렀으며, 주로 조선 왕조의 개국과 번영을 송축하는 내용

작품명	작가	내용
☆ 용비어천가	정인지 외	하늘이 뜻으로 건국된 조선이여, 영원하래

10. 경기체가

고려 중기에 발생하여 조선 초기까지 귀족층 사이에서 유행하던 노래. 주로 양반 귀족들의 향락적인 생활 양식과 그들의 심상을 노래했어. 일반적으로 각 연은 전소절과 후소절로 나뉘며, 각 소절의 끝에 '경기하여(景幾何如)' 또는 '경(景)의 엇더하니잇고'라는 구절이 반복돼. 그래서 경기체가!

경기체가 알아 보기

- 음수율(音數律)은 주로 3·3·4조가 우세해.
- 음보율(音步律)은 일반적으로 3음보.
- '위~경과 엇더하니잇고'의 후렴구가 있음.

경기체가의 작가는 누구?

대부분 귀족 계급의 문신들, 신흥사대부(고려 무신 정권이 들어선 후, 지방 향리 출신으로 중앙 관직에 오른 새로운 계층).

경기체가의 대표주자들 모여!

작품명	작가	내용
한림별곡	한림제유	시부, 서적, 명필, 명주(名酒), 화첩, 음악, 누각, 추천의 8장. 현실 도피적, 향락적 성격. 한문과 우리말로 표기함.
관동별곡	안축	강원도 순찰사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관동의 절경을 읊음. 이두문으로 표기함.
죽계별곡	안축	작가의 고향 풍기 땅 순흥(죽계)의 경치를 읊음. 이두문으로 표기함.
불우현곡	정극인	전원의 한정(閑情)과 성은(聖恩)을 노래함. 이두문으로 표기함.
화전별곡	김구	남해로 유배 갔을 때 그곳의 뛰어난 경치와 향촌의 인물들과 어울려 풍류를 즐기던 정서와 감회를 노래함.

STEP2 누워서 껌 씹기!



어렵겠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사미인곡'을 현대어로 풀어 볼까?

1998. 수능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야 백설(白雪)이 혼비친 제, 사툼은 카니와 놀새도 굿쳐 있다.

쇼상 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리커든, 옥누(玉樓)* 고쳐(高處)야 더욱 넓너 므슴 허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디 쓰이고져, 모첨(茅簷)* 비췌 히틀 옥누의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니미고 취슈(翠袖)*를 반만 거더. 일모(日暮) 슈독(脩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다툼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른 것틱 연공후(鉞篋篋)* 노하 두고,

꿈의나 님을 보려 툇밧고 비겨시니, 양금(鸞衾)도 츠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쉼고.

하르도 열두 세 혼 뉘도 설흔 날, 저근뎃 싱각 마라 이 시툼 닛자 허니,

막 몸의 미쳐 이서 골슈(骨體)의 세터시니, 편작(編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 허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꼇나보 가지마다 간 툇 족족 안니다가, 향므든 놀애로 님의 오시 울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츠려 호노라.

-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쇼상 남반(瀟湘南畔): 소상강 남쪽

*옥누(玉樓): 옥황상제가 있는 곳

*모첨(茅簷): 초가집 처마

*취슈(翠袖): 푸른 소매

*슈독(脩竹): 긴 대나무

*연공후(鉞篋篋): 자개 장식을 한 공후

폭풍점검!



읽을 수 있겠어?

오늘 배운 고전 어휘들, 외울 거지?

각 갈래별 특징 이해했지?





고전 시가, 발상 & 주제



- ① 고전 시가에 단골로 등장하는 발상을 정리한다!
- ② 고전 시가에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를 정리한다!

STEP.1 내 생애 마지막 개념 정리!

개념 65 단골 주제와 발상

1. ●●●의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中

- 초라한 발상도 괜찮아요~ (그 유명한 ●●●●●, ●●●●●, 단사표음, 단표누한, 빈이무원)
- ●●●(白動)(흰 갈매기) = 고전 시가 최다 출연 동물 = 자연친화, 물아일체
- ●●●(無心) = 고전에서 무심은 '욕심의 없다'는 뜻!

부귀라 구(求)치 말고 빈천이라 염(厭)치 말라 / 인생 백년에 한가할사 이내 것이
 ●●●●● ← 백구야 날지 말라 너와 망기(忘機)* 하오리라 <제1수>

→ ●●●●●
 보리밭 파 생채를 양 맞춰 먹은 후에 / 모제(茅齋)*를 다시 쓸고 복창하에 누웠더니
 눈앞에 태허* 부운(太虛浮雲)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제3수>

- 권구, 「병산육곡」

*망기: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음

*모제: 초가

*태허: 하늘을 달리 이르는 말

보리밭 쫓는 물을 일마초 머근 후(後)에, → ●●●●●

바윗곳 뽕 7의 슬꺾지 노니노라.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 윤선도, 「만흥」

강호(江湖) 흔적을 쫓아도 오직 너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야 어지버 미쳐서다.
침피기옥(簪彼淇澳)*흔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디 흥나 빌려하라.
노화(蘆花) 깊은 곳에 명월 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남지 업슨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늘그리라.
무심한 백구야 오라 흥며 말라 하라.
다토리 업슨 다문 인가 너기로라.



- 박인로, 「누항사」

*침피기옥: 물가물 바라봄

• ●●(복숭아꽃)가 나오면 그 곳은 이상 세계 = 무릉도원

두류산 양단수를 네 듯고 이제 보니,
도화(桃花) 뜬 물은 물에 산영(山影)이 잠겼세라.
아희야, 무릉(武陵)이 어디오, 나눈 연가 흥노라.

- 조식의 시조

• 가끔 ●●은 '체현, ●의 현장'

썸은 든든 대로 듯고 벗은 썸 대로 썸다.
청풍의 옷깃 열고 긴 피람 흘러 볼 제, → 자연 = ●의 공간
어디서 길 가는 소년네 아는 듯시 머무는고

- 위백규, 「농기구장」

2. ●●의 슬픔과 그리움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 어떻게 너를 잊어, 내가. 그런 거 나는 몰라.
가슴이 뻥 뚫려 채울 수 없어서 죽을 만큼 아프기만 해.

- 백지영, 「총 맞은 것처럼」 中

• 죽어서도 그대를 : OO으로 빙의(憑依)하여 ●에게 갈 거야.

꿈의나 날을 보려 희빛고 비겨시니, / 驚堂송금도 초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셀고.
하루도 열두 세, 흔 돌도 설흔 날, / 저근뼉 생각 마라. 이 시름 닛차 흥니
막음의 티쳐 이셔 臂骨髓수의 세터시니, / 扁鵲작 이 열히 오나 이병을 엇디하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널의 타시로다. / 출하리 쇠어디여 뽕나비 되오리라. → 죽어서라도 ●을 만나고파.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죽족 안니다가, / 향 뜨든 날애로 널의 오시 올드리라.
넌이야 날인줄 모르샤도 내 널 조촉려 흥노라.

- 정철, 「사미인곡」

넋 글인 상사몽(相思夢)이 실솔(蟋蟀)의 녀시 되야

추야장(秋夜長) 깊은 밤에 님의 방(房)에 드렀다가 / 날 닛고 집히 든 즘을 씨와 불가 호노라.

- 박효관의 시조

3. ●●●에 대한 ●●● 헤어질 수 없어, 사랑하니까

죽어도 못 보내. 정말로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고쳐 내.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 수라도 있게. 안 된다면 어차피 못 살 거. 죽어도 못 보내.

- 2AM, 「죽어도 못 보내」中

• 이런 ●●● 한 일이 일어나야 ●●●과 헤어지는 걸로!

삭삭기 세월에 별헤 나노 / 삭삭기 세월에 별헤 나노 / 구운 밤 닻 되를 심고이다.

●●●● ← 그 밤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 그 밤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有德(유덕)하신 님들 여히오와지이다.

↳ 못 헤어진다는 뜻.

- 작자 미상, 「정석가」

4. ●●●(忠) 애국가

나는 자랑스러운 임금님 앞에 국가와 임금님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사군자

●●●●, ●●●, ●●●, ●●●, ●●● ⇒ 추운 겨울이 돼도 변하지 않는 녀석들은 ●●●와 ●●●를 드러내는 데 딱인 거야.

백랍이 눈을 모라 山巖(산창)에 부딪치니, ●●● & ●●●

찬 氣運(기운) 식여 드러 굶든 梅花(매화)를 侵拂(침노)호다.

아무리 열우려 호인들 봄 뜻이야 이슬소냐.

- 안민영, 「매화사」

눈 마주 휘여진 뉘를 누라서 굶다련고.

구름 節(절)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

아마도 歲寒孤節(세한 고절)은 너썬인가 호노라.

- 원천석의 시조

白雪(백설)이 주자진 곶에 구루미 머호레라.

반가운 梅花(매화)는 어너 꽃에 피엿느고.

夕陽(석양)에 홀로 서 이서 갈 곳 몰라 호노라.

- 이색의 시조

• 해를 가리는 나쁜 ●● ⇒ ●●(奸臣)인 거죠!

●● ← 구름이 無心(무심)한 말이 아마도 虛浪(허랑)하다.
中天(중천)에 새 이서 任意(임의)로 돈니면서
구둑야 光明(광명)한 날빛을 찌라가며 엮느니.

- 이존오의 시조

• ●●에서 놀 수 있는 것도 ●●의 은혜여~!

江湖(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興(흥)이 절로 난다.
潮聲溪邊(차료계변)에 錦鱗魚(금린어) | 안주로라.
이 몸이 閒暇(한가)하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의 은혜

江湖(강호)에 여름이 드니 草堂(초당)에 일이 업다.
有信(유신)한 江波(강파)는 보내느니 바람이다.
이 몸이 서늘하움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5. ● 사노라면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 들국화, 「사노라면」 中

• 아, 사는 게 뭔지. 삶의 ●●, ●●

梧桐(오동)에 돛는 빗발 無心(무심)히 뚫건마는
나의 시름 하니 넘넘히 愁聲(수성)* 이로다.
이 後(후)야 입 넓은 남기야 시름 줄이 이시랴.

*수성: 근심하여 탄식하는 소리

●●의 소리

- 김상용의 시조

노래 삼킨 사람 시름도 하도할샤
닐러 다 못닐러 불러나 푸듯든가
眞實(진실)로 풀릴거시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 신희의 시조

→ 삶의 ●●
한숨아 세한숨아 네 어너 틈으로 드러온다.
고모 장주 세술 장주 들 장주 열 장주에 암돌적귀 수들적귀 비목걸식 썩닥 박고 크나큰 증을쇠로 속이속이 찻엇넌디 屏風(병풍)이라 밀려 첩고 簾子(족자) | 라 뒤티끌 말고, 네 어너 틈으로 드러온다.
어인지 너 온 날이면 증 못 드러 호노라.

- 작자 미상의 시조

어바이 사라진 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
 디나간 후에 애롭다 엇디하리.
 평침에 고티 꽃홀 일이 이뿐인가 한노라.
 → ●●● 섬기는 일.

- 정철, 「훈민가」

세상(世上) 사를 돌아 부모(父母) 은덕(恩德) 아느삼다.
 부모(父母) 못 하니면 이 몸이 있을소냐. → 한결같은 마음으로 ●●● 을 섬겨라, 쫄!
 생사(生死)장제(葬祭)에 예(禮)로써 종시(終始)갓게 섬겨서라.

- 박인로의 시조

호미도 놀히언마르논
 날그티 들 리도 업스니이다.
 아바님도 어이언마르논 → ●●● < ●●●
 위 명덕등성
 어마님 그티 괴시리 업세라.
 아소 남하.
 어마님 그티 괴시리 업세라.

- 작자 미상, 「사모곡」

8. 탄(嘆) ● (嘆老) 늙는 거, 싫어, 미혹

• 탄(嘆)가

빈 자리 향해 뛰는 아줌마 야속할 때
 오랜 만에 본 친구 나이 들어 보일 때
 '어쩔 뉘 그대로니'라는 말에
 그 말이 믿고 싶어질 때

- 이희진, 「탄로가」 中

춘(춘산)에 눈 노긴 바람 건듯 불고 간디 업다.
 처근 듯 비러다가 불리고자 마리 우회,
 귀 밧틱 허무근 서리를 노겨 불가 한노라.

→ ●●●

- 우탁의 시조

홀 손에 막디 잡고 쏘 홀 손에 가식 쥐고,
 늙는 길 가식으로 막고, 오는 白髮(백발) 막디로 치려터니,
 白髮(백발)이 제 뜯겨 알고 즈뎡길노 오더라.

→ ●●●

- 우탁의 시조

STEP.2 누워서 껌 씹기!



노래는 시대!

고전 시가는 아니지만, 우리 노래에 이어져 오는 단골 주제들 찾아볼까?

하드코어 인생아

- 옥상달빛

그냥 살아야지 그냥 살아야지
죽지 못해 사는 오늘
뒤틀림질만 치다가 벌써 벼랑 끝으로
어차피 인생은 굴러먹다 가는 톨게이트 같은
질퍽대는 땅바닥 지렁이 같은 걸
그래도 인생은 반짝반짝 하는
저기 저 별님 같은 두근대는 내 심장
초인종 같은 걸, 인생아

주제는?

잊지 말아요

- 백지영

눈물이 입을 가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주제는?

STEP.3 기출, 이것은 진리!



이제까지 배운 주제들, 작품들 속에서 찾아볼까?

Q1 다음 중 해당되는 주제에 ☒하고, O/X로 답해 봐.

☐ 사랑&이별 ☐ 자연 ☐ 비판 ☐ 교훈 ☐ 충(忠) ☐ 삶

청천(靑天)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날지 말고 넋 말 들어
한양성 내에 잠깐 둘러 부디 넋 말 잊지 말고 웨웨터* 불러 이르기엔 월항흔 계워 갈 제 적막 공규(空闕)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져 님 그려 츠마 못 살네라 하고 부디 한 말을 전하여 주렴
우리도 님 보러 밧비 꺾는 길이오매 전후동 말동 후여라

2016.06

- 작자 미상

* 웨웨터 : 외쳐.

- ①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임에게 알리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화자가 제삼자와 더불어 임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한양성 내에 잠깐 둘러', '적막 공규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져'에서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다.
- ④ '전하여 주렴'을 보면 작품 내에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형식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 ☒ ☒
☐ ☒ ☒
☐ ☒ ☒
☐ ☒ ☒

Q2 다음 중 해당되는 주제에 ☒하고, 물음에 답해 봐.

☐ 사랑&이별 ☐ 자연 ☐ 비판 ☐ 교훈 ☐ 충(忠) ☐ 삶

2016.수능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가 인주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하옵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제1수>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하옵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제2수>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찌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홀리되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하옵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제3수>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 자가 넘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하옵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제4수>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강호사시가」는 정계를 떠난 선비가 강호에서 누리는 개인적 삶을 표현한 작품이다. 사대부들은 수신(修身)을 임무로 하는 사(士)와 관직 수행을 임무로 하는 대부(大夫), 즉 선비와 신하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대부들이 향유한 시가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 ① '강호'는 개인적, 정치적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겠군.
- ② '한가'하게 '소일'하는 개인적 삶도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표현한 데서 정치적 성격을 엿볼 수 있군.
- ③ '강파', '바람' 등의 자연물과 '소정', '그물' 등의 인공물의 대립은 '사'와 '대부'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Q3 다음 중 해당되는 주제에 ☒하고, O/X로 답해 봐.

☐ 사랑&이별 ☐ 자연 ☐ 비판 ☐ 교훈 ☐ 충(忠) ☐ 삶

도롱이에 호미 걸고 뿔 굽은 검은 소 몰고
고동풀 뜯기면서 개울물 가 내려갈 제
어디서 풀 진 벗님 함께 가자 하시고

<제2수>

둘러내자 둘러내자 우거진 고랑 둘러내자
바랭이 여뀌 풀을 고랑마다 둘러내자

쉬 짙은 긴 사래는 마주 잡아 둘러내자

<제3수>

맑은 들은 대로 들고 벌은 짙 대로 쾜다
청풍에 옷깃 열고 긴 휘파람 홀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제4수>

- 위백규, 「농가(農歌)」

- ① 농사일 중에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움이 그려져 있군.
- ② 이 작품의 화자는 모두 노동의 현장을 주목하고 있군.
- ③ 먹고 입는 것과 관련한 농사일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군.

☐ ☒ ☐ ☒

☐ ☒ ☐ ☒

☐ ☒ ☐ ☒

- ④ 이 작품의 배경은 모두 농부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여 주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 ○ ☐ ×
- ⑤ '고랑'의 풀을 '마주 잡아' 걷어 내는 것을 통해 농사일을 함께 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 ○ ☐ ×
- ⑥ '호미'를 챙기고 '소'를 직접 몰고 가는 모습을 통해 농사일을 하러 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군. ☐ ○ ☐ ×

Q4 다음 중 해당되는 주제에 ☒ 하고, 물음에 답해 봐.

☐ 사랑&이별 ☐ 자연 ☐ 비판 ☐ 교훈 ☐ 충(忠) ☐ 삶

2016.수능

옛 역사는 보고 싶지가 않아
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걸.
군자들은 반드시 곤역을 당하고
소인들은 득세한 자들이 많으니,
성공할 즈음이면 문득 패망 싹트고
안정될 듯하면 이미 위태함 따르네.

古史不欲觀
觀之每迸淚
君子必困厄
小人多得志
垂成敗忽萌
欲安危已至

삼대시대 이후로는 오늘날까지
하루도 제대로 다스려진 적 없다오.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저 푸른 하늘의 뜻 알 수가 없네.
지난 일도 오히려 이려하거늘
하물며 오늘날의 일이겠는가.

從來三代下
不見一日治
生民亦何罪
冥漠蒼天意
既往尙如此
而況當時事

- 김육, 「관사유감(觀史有感)」

백성)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심정에 공감하며 격려하고 있다. ☐ ○ ☐ ×
- ② 대상을 예찬하며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 ☐ ×
- ③ 대상을 관조하며 인생의 의미를 반추하고 있다. ☐ ○ ☐ ×
- ④ 대상과 자신을 비교하며 삶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 ○ ☐ ×
- ⑤ 대상의 처지에 안타까워하며 현실을 탄식하고 있다. ☐ ○ ☐ ×

Q5 다음 중 해당되는 주제에 ☒ 하고, 물음에 답해 봐.

☐ 사랑&이별 ☐ 자연 ☐ 비판 ☐ 교훈 ☐ 충(忠) ☐ 삶

(가) 어저 내 입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있으랴 하더면 가라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하노라

- 황진이

(나) 임 이별 하올 적에 저는 나귀 한치 마소
가노라 돌아설 때 저는 걸음 아니런들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을 어찌 자세히 보리오

- 안민영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고 있다.
- ③ 임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을 담고 있다.
- ④ 이별로 인한 삶의 무상감이 나타나고 있다.
- ⑤ 힘든 상황을 낙천적인 자세로 극복하고 있다.

Q6 다음 중 해당되는 주제에 ☒ 하고, 물음에 답해 봐.

☐ 사랑&이별 ☐ 자연 ☐ 비판 ☐ 교훈 ☐ 충(忠) ☐ 삶

2013.07

명경(明鏡)에 티 끼었거든 값 주고 닦을 줄
아이 어른 없이 다 알고 있건마는
값 없이 닦을 명덕(明德)을 닦을 줄을 모르느냐.

〈제1수〉

성의관(誠意關)* 돌아들어 팔덕문(八德門) 바라보니
크나큰 한길에 넓고도 곧다마는
어찌타 진일 행인(盡日行人)이 오도가도 아닌 게오.

〈제2수〉

구인산(九仞山)* 긴 술 베어 제세주(濟世舟)를 무어* 내어
길 잃은 행인(行人)을 다 건너려 하였더니
사공도 뽕뽕치 못하여 모강두(募江頭)*에 버렸느냐.

〈제3수〉

- 박인로, 「자경(自警)」

* 성의관: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문.

* 구인산: 대덕(大德)으로 비유되는 높은 산.

* 무어: 반들어.

* 모강두: 저무는 강가.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제목의 의미

「자경(自警)」은 자기의 능력이 미치지 못함에 대한 자탄으로, 개인의 수신(修身)을 강조함.

작가의 창작 의도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고 덕행을 멀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유교적 수양을 권함.

단어의 의미

- 팔덕문(八德門): 팔덕을 갖춘 문. '팔덕'은 유교의 윤리 강령.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정도(正道)를 의미함.
- 제세주(濟世舟): 세상을 구제할 배. 인간의 도리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작가의 포부가 담겨 있음.

- ① 〈제1수〉에서 '명덕'을 닦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 도리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 ② 〈제1수〉에서 작가는 덕을 실천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③ 〈제2수〉에서 '크나큰 한길'은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인'이 만나는 장애물을 의미한다.
- ④ 〈제3수〉에서 '행인'을 건너게 하려는 화자를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⑤ 〈제3수〉에서 작가는 세상을 구제하고 싶은 포부에 비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한탄하고 있다.



Q7 다음 중 해당되는 주제에 ☒ 하고, 물음에 답해 보.

☐ 사랑&이별 ☐ 자연 ☐ 비판 ☐ 교훈 ☐ 충(忠) ☐ 삶

2017.09

(가) 싯ᄇ래 기나 즈르나 기둥이 기우나 트나
수간모옥(數間茅屋)*을 죽은 줄 옷지 마라
여즈버 만산 나월(滿山蘿月)*이 다 닉 거신가 호노라
〈8수〉

(나) 한식(寒食) 비 온 밤에 봄빛치 다 퍼졌다
무정(無情)ᄇ 화류(花柳)도 세를 아라 피엿거든
엇더타 우리의 남은 가고 아니 오노고
〈17수〉

(다) 여적 밤 비 온 후(後)에 석류(石榴)꽃지 다 피엿다
부용 당반(芙蓉塘畔)*에 수정렴(水晶簾)을 거더 두고
눌 향한 김흔 시름을 못내 푸러 호노라
〈18수〉

- 싯ᄇ, 『방옹시여(放翁詩餘)』

* 수간모옥: 방이 몇 칸 되지 않는 작은 초가.

* 만산 나월: 산에 가득 자란 명굴 풀에 비친 달.

* 부용 당반: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기.

〈보기〉의 ㉔를 고려하여 (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방옹시여」는 선조(宣祖) 사후에 정계에서 밀려난 싯ᄇ이 온거 상황을 배경으로 창작한 시조 작품을 모아 놓은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30수는 몇 개의 작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㉔은 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을 표현한 작품군, ㉔'남'으로 표상되는 선왕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을 표현한 작품군 등이 있다.

- ① (가)의 '만산 나월'은 ㉔와 연관된 시어로, '남'이 부재한 상황을 절감하게 하는 소재이다.
 ② (나)의 '봄빛'은 ㉔와 연관된 시어로, '남'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촉발하는 계기이다.
 ③ (다)의 '부용 당반'은 ㉔와 연관된 시어로,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다.



○ 사랑&이별 ○ 자연 ○ 비판 ○ 교훈 ○ 충(忠) ○ 삶

* 안연, 원현: 공자의 제자로 청빈한 인물들.

- ① ㉠에서는 빈곤한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에서는 고사 속의 인물을 이용하여 빈곤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에서는 빈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④ ㉠에서는 무력함을 꾸짖는 '가난 귀신'을 원망하고 있다.
- ⑤ ㉠에서 ㉣로 변화한 것은 '가난 귀신'과의 대화 때문이다.

고전 시가 단골 주제, 생각나는 대로 말해 보.

